

6·25참전 유공자·유가족 초청 광주경찰청 위로·격려 간담회



광주지방경찰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경찰청에서 6·25참전경찰 국가유공자와 6·25전몰군경 및 6·25참전경찰 유가족 등 14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경찰청 이형영 청장은 김호욱 6·25참전경찰 유공자 회장 등 3명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광주경찰청 로비에 전시된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쟁의 피해, 태안사 전투, 빨치산 토벌 사진 등 '참전경찰 사진' 31점을 관람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형영 청장은 "참전경찰관과 그 유족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않는 길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 모교 발전기금 잇따라 기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모교 방문과 두둑한 후원금 기부 등으로 훈훈한 모교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62년 졸업한 외대 10회(졸업생) 부부 48명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최근 모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올해로 졸업 20주년을 맞이한 40회 동문은 연구장학재단에 3억 646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졸업 50년이 된 10회 동문은 옛 스승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화상시절 얘기로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홍익희망포럼 개소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운동 전개

홍익희망포럼이 최근 남구 방림동 대원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일봉 홍익희망포럼 대표(전 남구청장)와 김용강 운영위원장을 비롯, 홍익희망포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익희망포럼 청년단 최성두 대표의 '복지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후격저 ▲일자리격저 ▲직격저 ▲건강격저 ▲아이돌 교육격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홍익희망포럼은 지난 3월20일 복지정책의 대안 및 새로운 실천방법을 제시할을 목적으로 발족했으며 4월19일에는 동구 금수장호텔에서 2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 행사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뉴욕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이철우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인권도시 광주와 함께 日 만행 세계에 알릴 것”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낫스카운티에서 기림비 제막식 수 있었던 것은 이철우(58)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 회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기림비를 세웠으며, 인권의 도시이자 민주 성지인 광주시를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보의 기림비 제막식 현장에서 이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떻게 뉴욕에 기림비를 세울 생각을 하게 됐나.

▲최근 일본인들이 미국 뉴저지주 펠리세이츠파크에 세워진 기림비 철거 운동에 나선 것을 보고 이곳 뉴욕에 기림비를 세울 결심을 했다. 일본이 한국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선 한일간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총리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후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광주를 파트너로 한 이유가 있는지.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한국 민주화를 쟁취한 성지이자 인권의 도시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의 기림비 건립에 대한 열정과 리더십, 경륜을 높이 평가했다. 기림비에 광주시 명칭을 기재하는데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광주의 정신을 존중하고 강운태 시장의 열정을 높이 사 공적으로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들었다.

▲일본은 위안부 기림비 건립 사실이 보도되자 낫스카운티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극심해졌다. 이미 만들어진 기림비를 아예 철거하려 크레인에 들어가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애드 캠페나 낫스카운티장의 적극적인 지원으

로 사업에 착수한 지 20여 일 만에 기림비를 제막할 수 있었다. 현재, 온갖 일본 언론에서 인터넷 유청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이곳 미국 한인들 사이에선 '어떻게 일본이 기림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 하는 의로운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림비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 달라.

▲군인이나 군대가 아닌 민간 전쟁 피해자의 기림비가 뉴욕주 낫스카운티 현충원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운티 관계자들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시는 결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기림비를 잘 관리해서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고 경종을 울리는 데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또 일부 기금을 모아 기림비 주변 단상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강운태 시장이 기림비 제막을 위해 한 달분 월급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민주 성지 광주에서 이번 기림비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길 바란다.

/뉴욕=홍행기기자 redplane@

“나이 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록하라”

광주 찾은 김영도 산악연맹 고문 ‘산과 인생’ 강연

구순(九旬)을 앞둔 김영도(89) 대한산악연맹 고문은 '한국산악계의 산증인'이다. 1977년 한국에베레스트원정대 대장을 맡아 고상문 대원을 한국인 최초로 정상에 올렸고, 북극탐험대장과(사)대한산악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산악문화에 새 지평을 연 선구자로 꼽힌다. 최근 나온 수필집 '우리는 산에 오르고 있는가'까지 20권의 저서와 번역서를 펴냈다. 산악인들에게 고전이 된 '8000미터의 위와 아래', '검은 고독 흰 고독', '죽음의 지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산서회 창립멤버이자 한국등산연구소장으로서 한국산악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 고문은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산과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열린 '산악도시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과 인터뷰에서 김 고문은 "세계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1000m가 넘는 산이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의 소중함을 거듭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무등(無等)이라는 명칭은 '금강'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이름"이라며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육군 장교로서 보병학교 교육을 받은 곳이 무등산 자락"이라며 광주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 고문은 '등로주의'(登路主義)를 제창한 엘버



트 프레드릭 머메리와 헤르만 볼, 발터 보나티, 라인홀트 메스너로 이어진 등산철학을 소개하며 공경한 수단, 정당한 방법(by fair means)에 의한 개척등반과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등산의 세계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지식과 체험은 등산에서 나온다. 하지만 국내 산악인들이 책을 너무 멀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드물다"며 산악계 후배들에게 "나이는 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록하라"고 주문했다.

김 고문은 "내년이면 90살이 되지만 지금도 전철을 탈 때 절대로 자리에 앉지 않는다"며 "죽을 때까지 (산악문화계의) 1인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정주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경제산업국 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광주시 경제산업국(국장 문금주) 공무원 60여 명은 최근 광산구 요기동을 찾아가 고추밭 물주기·수박줄기 제거·이앙기 모상차 세척 등 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제공>

여수교육청 박람회장서 '클린 교육' 홍보활동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여수박람회장에서 '클린 교육'을 위한 대국민 청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여수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청렴 동아리' 회원들이 주축이 돼 실시됐다.

전남우정청 '국민발전소 건설 동참 캠페인'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전기절약 대국민 홍보를 위해 최근 전남지역 시·군우체국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발전소 건설 동참 길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익산국토관리청 김일평 청장 이임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3일 익산국토청 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평 청장 이임식'을 했다. 김 청장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익산국토청 제공>

동신대 학생홍보대사 11명 선발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를 대표해 대학을 널리 알리게 될 2012학년도 동신대 학생홍보대사 11명이 최종 선발됐다. 홍보대사는 CF 등 대학 홍보를 모델과 캠퍼스투어 등을 통해 동신대를 홍보하게 된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승용(광주하남산단 부장)·호명순씨 장남 성호군 홍흥중·김효성씨 장녀 윤지양=30일(토) 오후 1시 20분 광주수아비스웨딩홀(구 경복궁) 1층 로즈홀.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장애인정보보호 무료 교육=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자격증, 그래픽디자인 등 IT 관련 모든 교육). 대상은 등록장애인 1~2급 누구나 가능(교육비 및

교재비 전액무료)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국내입양 가정=아이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과 입양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분들께 미혼모가 출산한 1세 미만의 아동 입양을 도와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교보생명 무등지점(지점장 강한숙) 이전=대원빌딩 10층(광주시 동구 호남동 23-2번지·광주천변 건너편) 062-510-6775. ▲무료 알코올상담=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엠마우스복지관·광주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지역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역 중 과정, 문화체험, 여가스포츠지원

사업=직적·자폐성 장애인 60명 대상. 12월까지 062-524-7701~3. ▲전의경회(경우회 특별회)=전 의경 전역자들의 모임회 창립 019-277-0007. ▲포인트재활원=추나요법, 재활 상담 무료, 두통, 오십견, 목, 허리, 디스크, 요통, 척추협착증, 골반통, 좌골신경통, 족부, 건강수기진단법 및 치료교정. 주야대기 062-651-9030. ▲참된 나 찾기 무료학습 공부=매주 목요일 오전 11시~12시 말바우 시장 농협 3층 리트딕빙상스튜디오 010-6609-9068.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www.e1391.or.kr)=전남지역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상담 및 보호·치료를 위한 활동과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회복을 도움.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모집

▲동그라미 언어학센터=언어 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및 검사 평가 월~9 (오전 9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남구 대남대로 113 (2층) 062-433-5559. ▲김승덕 작악 연희놀이 수강생=폼바놀이(장타령, 각설이 타령, 장구 북)·한국무용(기초무, 살풀이, 승무, 한량무) 주 1회반·주 2회반 (월~금) 오전 10시, 오후 2시 야간 7시 택1 062-228-4340, 010-3620-4341. ▲8월 임영 육군 동남인대병=지원자격은 84. 1. 1~94. 12. 31 출생자로 중졸이상 신체등위 1~2급자, 접수기간은 4일(월) 오후 2시~25일(월) 오후 2시까지 병무청홈페이지 선착순접수(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지원서작성(공인인증서 로그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62-230-4246~9. ▲픽션대련도(관장 강경철)=유치부·초·중·고·일반부 관원 수시모집, 유치부 대상(4~7세) 유림식 최신 유아체육프로그램에 의한 관장님지도 차량운행 062-522-9678. ▲피부의 꿈(대표 나 회)=포톤관리, 얼굴관리, 특수관리 등 회원 수

원은 주부극단 '여배우, 재석엄마 금당씨'=교육일시는 4일(월)~11월 23일(금)까지 매주 월요일 총 20회 진행. 남구문예회관 지하 1층 에어로비식(15명 내외)·어린이극단 '동네방네 꾸러기'=9일(토)~11월 2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20회 진행 남구문예회관 지하 1층 에어로비식, 대상 및 인원은 초등학교 2~6학년(15명 내외) 062-430-5257. ▲2012년 6회차(8월 입영) 해군 일반·기술병=지원자격은 18세~28세(84.1.1~94.12.31)·종족이상·신체등위 1~3급, 접수기간은 13일(수) 오후 5시까지, 접수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지원서작성(공인인증서 로그인)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62-230-4246~9. ▲벽산대련도(관장 강경철)=유치부·초·중·고·일반부 관원 수시모집, 유치부 대상(4~7세) 유림식 최신 유아체육프로그램에 의한 관장님지도 차량운행 062-522-9678. ▲피부의 꿈(대표 나 회)=포톤관리, 얼굴관리, 특수관리 등 회원 수

시모집 르네셀총관점(예약 및 상담 환영) 062-465-8802.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인력 여성장애인='아이 런 투아웃-시즌 2' 사업 참여,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선발 인원 25명), 6월부터 5개월간 지역아동센터 근무, 신청자격은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광주시에인복지관 직역재활팀 062-513-0977~9.

▲이금래(전 동강대학교 학장)씨 별세 용삼·용범·용은·용호씨 부친 상 기도서·박해두씨 병부상=발인 25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박중현씨 별세 수연·수정·수미씨 부친상 조기철씨 병부상=발인 25일(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경보씨 별세 이복순씨 모친 상 손창식씨 빙모상=발인 26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김중호 님(남/58세) 未亡人: 박영순. 子: 김현철(현호) 女: 김현희/조경석. 故정종규 님(남/74세) 子/子婦: 정기권/조성미/김/이미숙. 女/婿: 정은순/장남욱, 은이/강종식. 故김정영 님(여/73세) 子/子婦: 최정호/김정희, 경수/이숙. 女/婿: 정은순/김정희, 경수/이숙. 故김정영 님(여/73세) 子/子婦: 한태근, 판근/윤혜영. 女/婿: 정은순/김정희, 경수/이숙. 故김정영 님(여/73세) 子/子婦: 한태근, 판근/윤혜영. 女/婿: 정은순/김정희, 경수/이숙.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